

2012.05.24 9급 과목개편 모의평가 [국어]

배미진 교수
배미진닷컴(www.baemijin.com/)
아모르이그잼고시학원

총평

국어는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바탕으로 유사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고, 문학 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올해 문제에 시 문제가 출제된 것은 기존의 국가직 문제에도 한두 문제씩 출제되었던 적이 있으므로 예전의 경향과 크게 달라진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말로만 총평을 쓰는 것보다 기존의 문제와 비교해 가면 보면, 수험생들이 우왕좌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공식 박람회 때 출제된 문제 뒤에 정답과 해설을 달고, 그 뒤에 유사 기출 문제를 달아 쉽게 비교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기회에 문제 유형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여깁니다.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많은 수험생 여러분에 이 자료가 유용하게 쓰이길 바랍니다. 꼭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1. 외래어 표기법 <2010. 4.10. 국가직 9급 기출문제와 유사 유형임.>
2. 단위성 의존명사 <2008. 국가직 9급 문제 유사>
3. 한자성어 - 속담 <2008. 4. 12. 국가직 9급 기출문제 그대로 출제됨.>
<2011. 4. 9. 국가직 9급 기출 문제와 유사 유형임.>
4. 역설적 표현 - <2011. 4. 9. 국가직 9급 기출 문제와 유사 유형임.>
5. 독해 <2011. 4. 9. 국가직 9급 기출 문제와 유사 유형임.>
6. 공문서 안내문 <2007.4.14. 국가직 9급 기출 문제와 유사한 유형임.>
7. 독해 - 소설 지문 이해. <2009.4.11. 국가직 9급 기출 문제 그대로 출제됨.>
<2012.04.07. 국가직 9급 기출 문제와 유사한 유형임.> <2007.4.14. 국가직 9급 기출 문제와 유사한 유형임.>
8. 속담 <2012.5.12. 지방직 수탁 9급 기출 문제와 유사한 유형임.>
<2010.5.22. 지방직 수탁 9급 기출 문제와 유사한 유형임.> <2007.9.16. 국가직 세무 특채 기출 문제와 유사한 유형임.>
9. 통계 자료 이해 <2009.5.23. 지방직 수탁 9급 기출 문제와 유사한 유형임.>
10. 낱설게하기 표현 <2008.4.12. 국가직 기출 문제 그대로 출제됨>
11. 독해 <2012.04.07. 국가직 9급 기출 문제와 유사한 유형임.>
<2010.5.22. 지방직 수탁 9급 기출 문제와 유사한 유형임.>
12. 문장 성분 간의 호응 <2009.4.11. 국가직 9급 기출 문제 그대로 출제됨.>
<2012.4.7. 국가직 9급 기출 문제 유형과 유사함.> <2010.4.10. 국가직 9급 기출 문제와 유사 유형임.>
<2009.5.23. 지방직 수탁 9급 기출 문제와 유사 유형임.>
13. 한자성어 <2010.4.10. 국가직 9급 기출 문제 그대로 출제됨.> <2009.4.11. 국가직 9급 기출 문제와 유사 유형임.>
<2008.4.12. 국가직 9급 기출 문제와 유사 유형임.>
14. 조건에 맞는 글쓰기 <2010.4.10. 국가직 9급 기출 문제 그대로 출제됨.>
<2009.5.23. 지방직 수탁 9급 기출 문제와 유사 유형임.>
15. 말하기 방식 <2012.04.07. 국가직 9급 기출 문제와 유사 유형임.> <2009.5.23. 지방직 수탁 9급 기출 문제와 유사 유형임.>
16. 언어 예절 <2012.4.7. 국가직 9급 기출 문제 그대로 출제됨.> <2011.4.9. 국가직 9급 기출 문제와 유사 유형임.>
<2008.4.12. 국가직 9급 기출문제와 유사 유형임.> <2007.12.16. 국가직 세무 특채 기출 문제와 유사 유형임.>
17. 국어의 특질 <2009.4.11. 국가직 9급 기출 문제와 유사한 유형임.>
18. 한자어의 정확한 한자 알기 <2012.4.7. 국가직 9급 기출 문제와 유사한 유형임.>, <2011.4.9. 국가직 9급 기출 문제와 유사 유형임.>

19. 한자어의 문맥적 의미 알기 <2012.4.7. 국가직 9급 기출 문제 그대로 출제됨>, <2010.4.10. 국가직 9급 기출 문제와 유사한 유형임.>
 20. 띄어쓰기 <2011.4.9. 국가직 9급 기출 문제 그대로 출제됨.> <2010.4.10. 국가직 9급 기출 문제와 유사 유형임.>

2013년 대비 공직 박람회 9급 국가직 및 9급 지방직 수탁 문제

1. 다음 중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것은? <매년 출제되는 문제 유형>, <2012. 2010. 지방직 및 국가직 기출 유사함.>

- ① 핫케익 ② 텔레비전 ③ 서핑 ④ 쟈즈

[정답] ③

[정답 풀이] ① 핫케익 → 핫케이크 ② 텔레비전 → 텔레비전 ④ 쟈즈 → 재즈

[참고] 외래어 표기가 틀린 것은? <2012. 지방직 수탁 9급 기출>
 ① 파이팅 ② 슈퍼마켓 ③ 꼬낙 ④ 팜플릿

[정답] ③ [정답 풀이] 코낙

[참고] 외래어 표기와 로마자 표기가 모두 맞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2010. 국가직 9급 기출>
 ① gas - 가스, 전주(지명) - Jeonju
 ② center - 센터, 서산(지명) - Seosan
 ③ frypan - 후라이팬, 원주(지명) - Wonju
 ④ jumper - 점퍼, 청계천(지명) - Cheonggyecheon

[정답] ② [정답 풀이] ② 센터, 'Seosan'의 표기가 모두 맞다. [오답 풀이] ① Jeonju, ③ 프라이팬, Wonju, ④ Cheonggyecheon

2. ㉠~㉣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2006. 국가직 9급 기출문제와 유사함>

* 아내가 마늘 한 (㉠)을/를 들고 왔다.
 * 주문진 항에서 북어 한 (㉡)을/를 샀다.
 * 지친 남편을 위해 20일간 먹을 한약 한 (㉢)을/를 지었다.

- | | | | | | |
|------|---|---|-----|---|---|
| ㉠ | ㉡ | ㉢ | ㉠ | ㉡ | ㉢ |
| ① 고리 | 태 | 연 | ② 접 | 손 | 첩 |
| ③ 거리 | 쾌 | 필 | ④ 접 | 쾌 | 제 |

[정답] ④

[정답 풀이] 마늘 한 접(100개), 북어 한 쾌(20마리), 약 한 제(20첩).

[참고] 괄호 안의 수량을 모두 합하면 얼마인가? <2006. 국가직 9급 기출>

㉠ 고등어 한 손 ⇒ () 마리	㉡ 한약 한 제 ⇒ () 첩	㉢ 바늘 한 싹 ⇒ () 개
㉣ 김 한 톳 ⇒ () 장	㉤ 배추 한 접 ⇒ () 포기	㉥ 북어 한 쾌 ⇒ () 마리

- ① 182 ② 186 ③ 262 ④ 266

[정답] ④ [정답 풀이] ㉠ 2마리, ㉡ 20척, ㉢ 24개, ㉣ 100장, ㉤ 100포기, ㉥ 20마리 : 모두 266.

**3. 밑줄 친 부분과 같은 한역 속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08.4.12. 국가직 9급 기출문제 그대로 출제함>
<2011.4.9. 국가직 9급 기출 문제와 유사 유형임>**

관용적인 성어(成語) 가운데는 중국의 문헌에서 유래한 고사성어(故事成語)와는 달리 우리의 문헌에서만 발견되는 말이거나 우리 속담을 한역(漢譯)한 것들이 있다. ‘홍익인간(弘益人間)’, ‘함흥차사(咸興差使)’는 우리 역사 속에서 형성된 사자성어이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와 같은 뜻의 ‘오비이락(烏飛梨落)’이나 ‘제 눈에 물 대기’와 같은 뜻의 ‘아전인수(我田引水)’는 우리 속담을 한문으로 번역한 한역 속담(漢譯俗談)들이다.

- ① 燈下不明 ② 牛耳讀經 ③ 帝王切開 ④ 吾鼻三尺

[정답] ③

[정답 풀이] ‘제왕절개’는 ‘제왕절개’라는 라틴어를 어원으로 한 독일어 ‘카이저슈니트(Kaiserschnitt)’를 일본인들이 ‘Kaiser(제왕)’를 ‘제왕’으로 옮겨, ‘데이오 셋카이[제왕절개]’라고 직역하였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카이사르’가 이 수술로 태어나서 그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속설일 뿐이라고 한다.

[오답 풀이]

- ① 등하불명(燈下不明) : 등잔 밑이 어둡다.
 ② 우이독경(牛耳讀經) : 쇠귀에 경 읽기. = 쇠코에 경 읽기.
 ④ 오비삼척(吾鼻三尺) : 내 코가 석자다.

[참고] 한자 성어를 속담으로 뜻풀이할 때 옳지 않은 것은? <2011. 4. 9. 국가직 9급 기출 문제>

① 득룡망축(得龍望蜀) : “말 가는 데 소도 간다.”라는 뜻이다.
 ② 교각살우(矯角殺牛) :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뜻이다.
 ③ 당랑거철(螳螂拒轍) : “하룻강이 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뜻이다.
 ④ 망양보퇴(亡羊補牢) :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뜻이다.

[정답] ① [정답 풀이] 득룡망축(得龍望蜀) : 농(隴)을 얻고서 촉(蜀)까지 휘하고자 한다는 뜻으로, 만족할 줄을 모르고 계속 욕심을 부리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후한(後漢)의 광무제가 농(隴) 지방을 평정한 후에 다시 촉(蜀) 지방까지 원하였다는데에서 유래한다. 이와 같은 뜻의 속담 : “말 타면 경매[말고삐] 잡힌다.” 는 “말 타면 하인[종] 부린다.(부리고 싶다.)”
 뜻 : 걸어 다닐 때에는 말을 타고 싶고, 말을 타고 가면 또 말고삐를 잡아 줄 하인을 부리고 싶어짐.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음을 이룸.
 “말 가는 데에 소도 간다.”, “소 가는 데 말도 간다.”의 뜻은 ㉠ 안 갈 데를 간다는 말. ㉡ 남이 할 수 있는 일이면 나도 할 수 있다는 말임.

4. 다음 중 밑줄 친 ㉠과 유사한 발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2011. 4. 9. 국가직 9급 기출 문제와 유사 유형임>

주옹이 말하기를, “아아, 손은 생각하지 못하는가? 대개 사람의 마음이란 다잡기와 느슨해짐이 무상(無常)하니, 평탄한 땅을 디디면 태연하여 느긋해지고, 험한 지경에 처하면 두려워 서두르는 법이다. ㉠ 두려워 서두르면 조심하여 든든하게 살지만, 태연하여 느긋하면 반드시 흐트러져 위태로이 죽나니, 내 차라리 위험을 딛고서 항상 조심할지언정, 편안한 데 살아 스스로 쓸모없게 되지 않으려 한다.”

-주옹설-

- ①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②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③ 닭아, 닭아, 울지 마라, 네가 울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면 나 죽는다.
 ④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가고 말아, 삼백 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내다.

[정답] ②

[정답 풀이] 역설과 대구법이 쓰였다.

[오답 풀이]

- ① 반복법 : 같거나 비슷한 어구를 되풀이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수사법.
- ③ 연쇄법 : 앞 구절의 끝 어구를 다음 구절의 앞 구절에 이어받아 이미지나 심상을 강조하는 수사법
- ④ 과장법 : 사물을 실상보다 지나치게 과도하게 혹은 작게 표현함으로써 문장의 효과를 높이는 수사법.

[참고] 밑줄 친 ㉠에 사용된 표현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1. 4. 9. 국가직 9급 기출 문제>

<보기> 삶은 계란의 껍질이/벗겨지듯/묵은 사랑이/벗겨질 때/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엷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 김수영, '파발 가에서' 중에서 -

- ① 생명이 없는 사물을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나타내는 표현이다.
- ② 사물의 일부나 그 속성을 들어서 그 전체나 자체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 ③ 표현하려는 본뜻과는 반대되는 말을 함으로써 문장의 의미를 강화하는 표현이다.
- ④ 표현 구조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모순되는 말이지만, 실질적 내용은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다.

[정답] ④

[정답 풀이] ① 활유법, ② 대구법, ③ 반어법 ④ 역설법

* 역설법 : 표현 구조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모순되는 말이지만, 실질적 내용은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다.

①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모순되고 부조리하지만, 표면적 진술을 떠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근거가 확실하든지, 깊은 진실을 담고 있다.

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살고자 하면 죽는다. 죽고자 하면 산다.

② 보통 서로 반대 개념을 가진, 또는 적어도 한 문맥 안에서 같이 사용될 수 없는 말들을 결합시키는 '모순 어법'을 통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① 괴로운 사나이, 행복한 예수

② 서로 반대가 되어 일치할 수 없는 두 어구의 대조에 의한 결합으로서, 어떤 진리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 주고자 할 때 쓰이는 기법이다.

① '쾌락의 고통', '사랑의 증오', '찬란한 슬픔', '침묵의 웅변'

* 역설법의 예

①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 유치환, <깃발>

② 외롭고도 활활한 심사이어나. - 정지용, <유리창>

③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④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 이형기, <낙화>

⑤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 - 서정주, <견우의 노래>

⑥ 남은 값지만, 나는 남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 한용운, <남의 침묵>

⑦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 한용운, <수의 비밀>

⑧ 이별은 미(美)의 창조(創造)입니다. - 한용운, <이별은 미의 창조>

⑨ 날과 밤으로 흐르고 흐르는 남강(南江)은 가지 않습니다.

천추(千秋)에 죽지 않는 논개여, / 하루도 살 수 없는 논개여, - 한용운, <논개의 애인이 되어서 그의 묘에>

⑩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 - 이육사, <절정>

⑪ 두 불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향서 서러워라. - 조지훈, <승무>

⑫ 가까이 들리는 머연 발자취 - 윤관강, <입추>

⑬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 윤동주, <십자가>

⑭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 김지하, <타는 목마름으로>

⑮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도, 사랑보다도 /더 너그러운 것이로다. - 구상, <초토의 시8 - 적군 묘지 앞에서>

⑯ 바라보노라, 온갖 것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 - 고은, <눈길>

⑰ 저 갑갑한 대낮 파력이 달려온다. - 고은, <화살>

⑱ 엄동 혹한일수록 /선연히 피는 성에꽃, - 최두석, <성에꽃>

⑲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 김지하, <타는 목마름으로>

⑳ 엷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 김수영, <파발 가에서>

5.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매년 출제되는 문제 유형>, <2011.4.9. 국가직 9급 기출 문제와 유사한 유형임>

<보기>

미국항공우주국(NASA) 케네디 우주센터의 레이몬드 윌러 박사팀은 무, 양상추, 밀 등의 식물을 특수 챔버 속에서 넣고 20여 일간 길렀다. 이후 챔버의 공기압을 대기압의 1.5%까지 낮춰 진공에 가깝게 만들어 30분간 지속시켰다. 22℃였던 온도는 16℃까지 떨어졌다. 그나마 남아 있는 공기의 대부분은 수증기였다. 다시 기압을 정상으로 되돌리자 모든 식물은 정상적으로 자라기 시작했고, 일주일 후 수확할 때까지 눈에 띄는 이상이 없었다.

- ① 미국항공우주국에서는 공기압 관련 실험을 진행했다.
- ② 공기압과 식물의 성장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었다.
- ③ 특수 챔버에서 일주일간 기른 식물 20일 후에 수확했다.
- ④ 식물은 진공 상태가 30분간 지속되는 환경에서도 살아남았다.

[정답] ③

[정답 풀이] ③ 챔버 속에서 20여 일간 길렀다. 20여일 기른 식물을 30분 정도 진공 상태에 두었다가 이후 일주일 후 수확했다.

[오답 풀이] ① 본문의 내용 중, “공기압을 대기압의 1.5%까지 낮춰 진공에 가깝게 만들어 30분간 지속시켰다가 다시 기압을 정상으로 되돌리었다.”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②와 ④는 본문의 내용 중, “기압을 정상으로 되돌리자 모든 식물은 정상적으로 자라기 시작했 고~”를 통해 알 수 있다.

[참고] 다음 글의 필자 생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2011.4.9. 국가직 9급 기출 문제>

<보기>

조금 예민한 문제이지만 외몽고와 내몽고라는 용어도 문제가 있다. 외몽고는 중국을 중심으로 비갈쪽이라는 뜻이고, 내몽고는 중국의 안쪽에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영토 내지는 귀속 의식을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표현한다면 북몽골, 남몽골로 구분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중국과의 불화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 중국의 신강도 ‘새 영토’라는 뜻이므로 지나치게 중화주의적이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유 전통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기도 하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호주의 원주민 보호 구역 역시 ‘보호’라는 의미를 충족하지 못한다. 수용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객관적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외교적인 부담을 피할 길이 없다. 이처럼 예민한 지명 문제는 학계의 목소리로 남겨 두는 것이 좋다.

- ① 정부는 외몽고를 북몽골로 불러야 한다.
- ② 지명 문제로 외교 마찰을 빚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③ 외몽고, 내몽고, 신강 등과 같은 표현은 객관적인 표현이라 할 수 없다.
- ④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는 지명 문제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다.

[정답] ①

[정답 풀이] 문단의 첫머리에 나오는 ‘조금 예민한 문제’란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문제를 의미한다는 것을 뒤에 이어지는 ‘중국과의 불화’, ‘외교적인 부담’이란 표현에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마지막 문장에서 “이처럼 예민한 지명 문제는 학계의 목소리로 남겨 두는 것이 좋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정치적이고 외교적으로 예민한 지명 문제로 외교적 마찰을 빚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필자가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정부는 외몽고를 북몽골로 불러야 한다. : ‘외몽골’과 ‘내몽골’은 중국의 입장이 드러나는 주관적 지명이고, ‘북몽골’과 ‘남몽골’은 객관적 관점의 지명이다. 만약 외몽골을 북몽골로 부르게 된다면, 중국과의 외교적 불화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 즉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일어날 것이다. 필자는 그런 외교적 마찰이 일어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①번의 선택지의 내용은 필자의 생각과 맞지 않다.

6.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2007.4.14. 국가직 9급 기출 문제 유형과 유사함.>

○○읍 상징물 제작 선정 · 공모 공고

- 1. 공모 기간 : 2012. 5. 10. ~6. 10.
- 2. 참가 대상
 - ○○읍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관심 있는 자
 - ○○읍 소속 공무원
- 3. 공모 대상
 - ○○읍 상징 기호 1개, 상징 구호 1개
- 4. 공모 부문
 - 상징 기호 및 상징 구호 : ○○읍의 이상과 희망을 표현
 - 상징 기호 : ○○읍의 이미지, 정체성 및 미래 비전 등을 함축
 - 상징 구호 : 구호 형태의 짧은 문구(한글, 영문 각종 기호 사용 가능)
- 5. 구비 서류(별지 서식 참고)
 - ○○읍 상징 기호 : 공모 신청서/작품 설명서/파일 도안

- ○○읍 상징 구호 : 공모 신청서/설명서
6. 제출 규격
- 파일 크기 : 3508×4691 픽셀 이하, 해상도 150 이상
 - 파일 형식 : jpg, ai, eps, psd, cdr

- ① 공모 대상은 총 2개 부문이다.
- ② 참가자는 ○○읍 공무원이어야 한다.
- ③ 공모 수상자는 각 부문별로 1명씩 선정한다.
- ④ 제출하는 파일명은 제출자의 한글 성명으로 한다.

[정답] ①
 [정답 풀이] 공모 대상은 '상징 기호 1개, 상징 구호 1개'로 총 2개 부문이다.
 [오답 풀이]
 ② 참가자는 ○○읍 소속 공무원 외에도 ○○읍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관심 있는 자도 가능하다.
 ③ 공모 수상자에 대한 내용은 없다. 공모 대상이 각 1개씩 일반 수상자 선정 인원에 대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④ 제출하는 파일 형식이 'jpg, ai, eps, psd, cdr'이라는 내용만 있을 뿐 제출자 한글 성명으로 파일명을 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참고] 재해 예방 포스터를 공모하는 안내문이다. 반드시 추가해야 할 내용은? <2007.4.14. 국가직 9급 기출 문제>

<보기>

자연 재해 예방을 위한 범국민적 홍보와 자율 방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해 예방 포스터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ㄱ. 공모 부문 :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ㄴ. 문의처 : 소방방재청 방재관리본부 방재대책팀

- ① 공모 기간과 신청 방법
- ② 공모 기간과 공모 대상
- ③ 포스터의 크기와 공모 취지
- ④ 수상 내역과 공모 작품의 주제

[정답] ①
 [정답 풀이] ① 공모 기간과 신청 방법이 추가될 내용이다.
 ② 공모 기관과 공모 대상이 드러나 있다. - 공모 기관-소방방재청, 공모 대상-전 국민
 ③ 공모의 취지가 드러나 있다. - '자연 재해 예방을 위한 범국민적 홍보와 자율 방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④ 작품의 주제가 드러나 있다. - '재해 예방'

7. 밑줄 친 "실의(失意)의 무진행" 당시에 '박 군'은 몇 살이었으며, '박 군'의 현재 내 나이는 몇 살인가?
<2009.4.11. 국가직 9급 기출 문제 그대로 출제함>

4년 전, 나는 내가 경리(經理) 일을 보고 있던 제약회사가 좀 더 큰 다른 회사와 합병되는 바람에 일자리를 잃고 무진으로 내려왔던 것이다. 아니 단지 일자리를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을 떠났던 것은 아니었다. 동거하고 있던 희만 그대로 내 곁에 있어 주었던들 실의(失意)의 무진행은 없었으리라.

"결혼하셨더군요?"
 박이 물었다.
 "호응, 자넨?"
 "전 아직. 참 좋은 데로 장가드셨다고들 하더군요."
 "그래? 자넨 왜 여태 결혼하지 않고 있나? 자네 금년에 어떻게 되지?"
 "스물아홉입니다."
 "스물아홉이라. 아홉수가 원래 사납다고 하대만. 금년엔 어떻게 해 보지 그래?"
 "글쎄요."
 박은 소년처럼 머리를 긁었다. 4년 전이니까 그해의 내 나이가 스물아홉이었고 희가 내 곁에서 달아나 버릴 무렵 지금 아내의 전 남편이 죽었던 것이다.

- 김승옥, '무진기행'

	박군의 나이	내 나이
①	25	29
②	29	33
③	29	29
④	25	33

[정답] ④

[정답 풀이] ‘박군’과 ‘나’의 대화는 현재의 내용이다. 현재 대화에서 나타나는 박군의 나이는 29세이다. ‘나’가 실직과 실연으로 실의에 빠져 있을 때, 고향 무진으로 여행을 떠난 것이 4년 전의 일이고, 4년 전의 ‘나’의 나이가 지금의 박군의 나이처럼 29살이므로 현재의 ‘나’의 나이는 33세이다. 내가 실의에 빠져 무진으로 여행을 떠났던 4년 전 박군의 나이는 25세가 맞다.

[참고]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2012.04.07. 국가직 9급>

<보기>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 처결하기를, 집안의 살림살이 전권(全權)을 마땅히 물려받아야 할 주부 고 씨는 제쳐 놓고서 한 대(代)를 경총 건너뛰어 손주의 대로 내려가게 했던 것입니다. 고 씨의 며느리 되는 박 씨 즉, 윤직원 영감의 맏손자 며느리가 시할머니의 뒤를 바로 이어서 집안의 안살림을 도맡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묻지 않아도 내가 주부로 들어앉아 며느리를 거느리고 집안 살림을 해 가는 어른이 되겠거니 했던 고 씨는 고만 개방에 도토리가 되어 버리고, 도리어 시어머니 오 씨 대신에 며느리한테 또다시 시집살이를 하게끔 된 셈이었습니다.

- 채만식, ‘태평천하’ 중에서 -

- ① 윤직원 영감은 실망이 컸겠군.
- ② 시할머니는 지애로운 분인 것 같아.
- ③ 박 씨는 부유한 집안에서 시집왔겠군.
- ④ 고 씨의 현재 심경은 아주 절망적일 거야.

[정답] ④

[정답 풀이]

윤직원 영감 : 고 씨의 시아버지.

오 씨 : 고 씨의 시어머니. 박 씨의 시할머니.

고 씨 : 윤직원 영감과 오 씨의 며느리. 박 씨의 시어머니.

박 씨 : 고 씨의 며느리.

‘고 씨’는 자신이 집안의 살림살이 전권을 ‘마땅히’ 물려받아야 할 것이며, ‘묻지 않아도’ 내가 주부로 들어앉아 며느리를 거느리고 집안 살림을 해 가는 어른이 되겠거니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던 것과는 다르게 며느리인 ‘박 씨’가 안살림을 도맡아 하게 되었으므로, 그만큼 절망적인 심경일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참고] 다음의 대화를 읽고 두 인물(윤 군, 나)의 입장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07.4.14. 국가직 9급 기출 문제>

<보기>

“자네(윤 군)와 나와, 한 신문사의 같은 자리에 있다가 자네 사직을 하구 나가는데 난 머물러 있지 않았던가?”

“그래서?” (중략)

“그렇다면 그걸 재산적 운명이라구나 할는지, 내가 결백할 수가 없다는 건 가난했기 때문이요, 자네가 결백할 수가 있었다는 건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이요, 그것밖에 더 있나? 자네와 나와를 비교 대조해서 볼 땐 적어두 그렇잖나? 물론 가난하다구서 지조를 팔아 먹었다는 것이 부끄러운 노릇이지, 또 오늘이라두 민족의 심판을 받는다면, 지은 죄만치 복죄(伏罪)할 각오가 없는 바두 아니구, 그렇지만 자네같이 단지 부자 아버질 돈 덕분에 팔아먹지 아니할 수가 있었다는 절개두 외락 자랑꺼린 아닐 상 부르이.”

“그건 진부한 형식 논리요, 결국은 억담. 월급쟁이가 반드시 신문사 밥만 먹어야 한다는 법은 있던가? 신문 기자 말구 달리 얼마든지 월급쟁이질을 할 자리가 있지 않야?”

- 채만식, ‘민족의 죄인’

- ① ‘나’는 생계를 구실로 현실에 안주하였다.
- ② ‘윤 군’은 지식인의 지도적 역할을 중시하였다.
- ③ ‘나’의 대일 협력은 시대적 특수성 때문이었다.
- ④ ‘윤 군’의 대일 협력은 경제적 능력을 배경으로 하였다.

[정답] ④ [정답 풀이] 윤 군은 민족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 신문사를 그만두었으므로 저항적 인물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 대화 내용에서 드러난다. ‘나’의 논리가 억대인 하지만 ‘나’의 말을 통해 ‘윤 군’이 일제에 저항했음을 알 수 있다. ‘나’의 논리를 살펴보자. : 윤 군이 일제에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은 윤 군이 부자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이다. 즉 경제적 능력이라는 배경이 있어서 일제에 저항할 수 있었다.

8. 다음 글에서 (㉠)에 들어갈 속담으로 적절한 것은? <2012.5.12. 지방직 수탁 9급 기출 문제와 유사한 유형임.>
 <2010.5.22. 지방직 수탁 9급 기출 문제와 유사한 유형임.> <2007.9.16. 국가직 세무 특채 기출 문제와 유사한 유형임.>

한국인은 매우 빠른 속도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음식점에 가면 우리의 속도가 여실히 드러난다. 음식을 시킨 후 음식이 나오지 않는다고 재촉한다. 원래 음식을 만들려면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 만약 손님에 요구대로 음식을 급하게 만들어서 내놓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현대인들 대다수가 계단보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출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의 의미는 어떤 일을 할 때도 절차와 순서를 밟아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모두 '빠름'에서 벗어난 음식을 천천히 기다리는 멋, 한 계단씩 딛고 올라가는 즐거운 멋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 ① 아이 자라 어른이 된다. ② 비늘허리에 실 매어 쓸까.
 ③ 승어가 뛰니깐 망둥이도 쫓는다. ④ 망건 쓰고 귀 안 빼는 사람 있느냐.

[정답] ②

[정답 풀이] 어떤 일든지 절차와 순서를 밟아야 한다는 뜻의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늘허리에 실 매어 쓸까'이다.

* 비늘허리에 실 매어 쓸까 :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비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다는 뜻으로, 어떤 일에서나 다 절차와 방식이 있는 것이니 그것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르는 말.

[오답 풀이]

- ① 아이 자라 어른이 된다 : 보잘것없는 일이 차차 발전하여 크게 되거나 큰일이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승어가 뛰니깐 망둥이도 쫓는다 : ㉠ 남이 한다고 하니가 본별없이 덩달아 나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망둥이가 뛰니까 전라도 빗자루도 쫓는다·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쫓는다·잉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쫓는다·잉어 승어가 오니 물고기라고 송사리도 온다.
 ㉠ 계 분수나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잘난 사람을 덮어놓고 따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망건 쓰고 귀 안 빼는 사람 있느냐 : 망건을 쓰면 누구나 조금이라도 편하게 귀를 내놓는다는 뜻으로, 돈 버는 일이나 먹는 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참고] <보기> 글의 내용과 관련된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2.5.12. 지방직 수탁 9급 기출 문제>

<보기>

우리 토박이말이 있는데도 그것을 쓰지 않고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쓰는 버릇이 생겼다. '가람'이 옛날부터 있는데도 중국에서 '강(江)'이 들어오더니 '가람'을 물리쳤고 '뫼'가 있는데도 굳이 '산(山)'이 그 자리에 올라 앉고 말았다. (중략) 원래 '외래어'란, 우리말로는 적당하게 표현할 말이 없을 때에 마지못해 외국말에서 빌려다 쓰다가 보니 이제 완전히 우리말과 똑같이 되어 버린 것을 말한다. '학교, 선생, 비행기, 가족계획' 등등의 무수한 한자어가 그것이며, '버스, 빌딩, 커피, 뉴스' 등등 서양에서 들어온 외국어가 그것이다. -허웅, '한글과 민족문화' 중에서-

①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② 굴러 온 돌이 박힌 돌 췌다.
 ③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④ 말은 해야 맛있고 고기는 씹어야 맛이다.

[정답] ② [정답 풀이] 위 글은 우리 토박이말이 있는데도 한자어와 외국어가 들어와 쓰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원래 있어야 할 것이 토박이말이고 그 자리에 한자어와 외국어가 들어와 쓰이고 있는 상황이므로 '굴러 온 돌이 박힌 돌 췌다.'라는 속담이 가장 잘 어울린다.
 * 굴러 온 돌이 박힌 돌 췌다 : 외부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오래전부터 있던 사람을 내쫓거나 해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굴러 온 돌한테 발등 다친다. [오답 풀이] ① *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 말은 비록 발이 없지만 천 리 밖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 ㉠ 아무도 안 듣는 데서라도 말조심해야 한다는 말. ≒밤말은 쥐가 듣고 낮말은 새가 듣는다. ㉠ 아무리 비밀한 한 말이라도 반드시 남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 ④ 말은 해야 맛있고 고기는 씹어야 맛이다 : 마땅히 할 말은 해야 한다는 말.

[참고]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0. 5. 22. 지방직 수탁 9급 기출 문제>

<보기>

"계정회가 세간에 이름이 나서 회원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 기색일세. 이리다가는 회 자체가 깨어지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 "깨어 지기가 하겠는가. _____, 나는 이번 일을 오히려 잘된 일로 생각하네." - 홍성원, '먼동' 중에서 -

① 쫓아가서 벼락 맞는다고 ② 곤장 메고 매품 팔러 간다고
 ③ 식초에 꿀 탄 맛이라고 ④ 마디가 있어야 새순이 난다고

[정답] ④ [정답 풀이] ④ 마디가 있어야 새순이 난다 : 나무의 마디는 새순이 나는 곳이다. 즉 마디는 성장하기 위한 디딤돌이자 발판이 된다. 어떤 일의 과정에서 생기는 역경이 오히려 일의 결과에 좋은 영향을 미침을 비유하여 이룸.
 [오답 풀이]* 꽃이어서 벼락 맞는다 : 피해야 할 화를 괜히 나서서 화를 당함. * 곤장 메고, 매품 팔러 간다 : 공연한 일을 하여 스스로 화를 자초함.

[참고]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07.9.16. 국가직 세무 특채 기출>

<보기>

하루는 신수 불길한 제비 한 쌍이 놀부 집으로 들어가니 놀부가 제비를 보고 어떻게 반가웠던지, 소반에다 물을 떠서 처마 밑에 차려 놓고 두 손 합장 절을 하며, “제비님 오시니까? 어찌 행차가 더디시며 내 간장을 녹이신가?” 앞뒤를 금줄 치고 부정을 가리면서 알 낳기를 기다릴 제, 마음 바쁜 놀부놈이 삼시로 어떻게 만졌던지 다섯 개는 염증이 나서 곪아 버리고, 하나 까서 날기 공부 익힐 적에 제비 새끼 날라 하고 제 집 가에 발을 부쳐 날개를 발발 떨 제, 놀부놈 바라보고,

“떨어집소서. 떨어집소서.”

손을 싹싹 부비어도 중시 아니 떨어지니 놀부놈 바라보다 망당하여 절로 절각(折脚) 기다리다가는 놀치기가 쉬울 테니

() 하고, 사방을 둘러보며 아무도 안 볼 때 제비 새끼 집어내어 그 약한 두 다리를 무릎에 대고 자근자근 꺾어 마룻바닥에 선듯 놓고 모르는 체 돌아서서 뒷집 지고 거닐며 목소리 크게 내어 풍월을 읊으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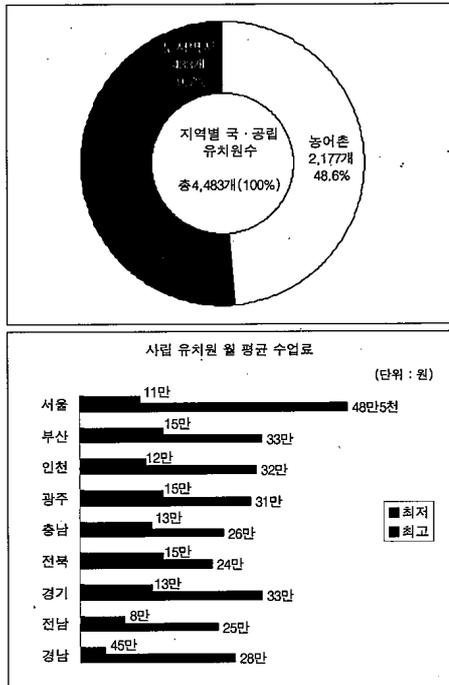
-박낙주 창본 '흥부가에서 '놀부 제비 후리는 대목' -

- ① 울려 놓고 달래리라
- ② 가는 말에 채찍질하리라
- ③ 도랑 치고 가재 잡으리라
- ④ 쏘아 놓은 살이요, 엇지른 물이라

[정답] ① [정답 풀이] 울려 놓고 달래다 : = 병 주고 약 준다.

남을 해치고 나서 악을 주며 그를 구원하는 체한다는 뜻으로, 교활하고 음흉한 자의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9. 다음 표를 보고 추론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09.5.23. 지방직 수탁 9급 기출 문제와 유사한 유형임>



- ① 시도별 사업 유치원 등록금 순위는 그 지역의 국·공립 유치원의 수와 비례할 것이다.
- ② 미취학 자녀들을 키우는 대도시 빈민들은 자녀의 유치원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③ 국공립 유치원의 설립은 교육 환경이 부실한 지역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④ 대도시에 있는 사업 유치원의 월 평균 수업료가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수업료가 싼 국공립 유치원 수의 부족에도 기인한다.

[정답] ①

[정답 풀이] ④의 내용을 참조하여 보면 ①의 내용은 잘못 추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첫 번째 표에는 지역별 국공립 유치원의 수가 나와 있는데, 이 표에는 대도시의 국공립 유치원이 598개 13.3%로 비율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미취학 자녀들(유치원에 보내야 할 아이)을 키우는, 대도시의 빈민들은 자녀의 유치원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③ 교육 환경이 부실한 지역에 국공립 유치원의 수가 많은 것으로 보아 국공립 유치원의 설립은 교육 환경이 부실한 지역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④ 월 평균 수업료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등인데, 이들은 모두 국공립 유치원이 부족한 대도시이므로 ④의 내용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참고] 다음 기사에 나타난 통계를 통해 추론할 수 없는 것은? <2009.5.23. 지방직 수탁 9급 기출 문제>

<보기>

일본에서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 곁을 떠나지 않고 붙어서 '캥거루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가 2004년 전국 1만 711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21일 발표한 가구 동태 조사를 보면, 가구당 인구수는 평균 2.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2인 가구는 28.7%로 5년 전 조사 때보다 조금 증가한 반면, 4인 가구는 18.1%로 조금 줄었다.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의 비율은 크게 증가했다. 30 ~ 34살 남성의 45.4%가 부모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연령층 여성의 부모 동거 비율은 33.1%였다. 5년 전에 비해 남성은 6.4%, 여성은 10.2% 증가한 수치이다. 25 ~ 29살 남성의 부모 동거 비율은 64%, 여성은 56.1%로 조사됐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기혼자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독신으로 부모로부터 주거와 가사 지원을 받는 캥거루족으로 추정된다.

- ① 25~34살의 남성 중 대략 반 정도가 부모와 동거한다.
- ② 현대사회에서 남녀를 막론하고 만혼 현상이 널리 퍼져 있다.
- ③ 30~34살의 경우 부모 동거비율은 5년 전에도 여성이 남성 보다 높지 않았다.
- ④ '캥거루족'이 늘어난 것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답] ④ 직장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은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10. 다음 글의 주장과 같이 만들어진 광고 카피가 아닌 것은? <2008.4.12. 국가직 기출 문제 그대로 출제됨>

러시아 형식주의자인 야콥슨은 문학을 "일상 언어에 가해진 조직적인 폭력"이라 말한다. 즉 문학은 일상 언어를 변형하여 강도 있게 하며 일상적인 말로부터 계획적으로 이탈한다는 것이다. 낯설게 하기는 문학 언어를 일상 언어와 구별시켜 주는 근본이다. 우리는 일상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상투성으로 인해 우리의 의식은 고여 있는 물처럼 새롭게 생성되지 못하고 스테레오 타입으로 고정되고 자동화된다. 광고 카피에서 기존의 식상한 표현을 벗어나 놀라움을 주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선 도식적인 공식, 즉 법칙을 파괴하는 창조적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문학에서 말한 이것과 같은 의미이다.

- ① 난 샐러드를 마신다! (OO유업 - 요구르트 광고)
- ② 이젠, 빛으로 요리하세요! (OO전자 - 전자레인지 광고)
- ③ 차도 이 맛을 안다. (OO정유 - 기름 광고)
- ④ 우리는 젊음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 (OO그룹 - 기업 광고)

[정답] ④

[정답 풀이] 제시된 문장 중에서 가장 상투적 표현이고, 어법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문장을 찾으면 된다.

11.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2012.04.07. 국가직 9급 기출 문제와 유사한 유형임.>

<2010.5.22. 지방직 수탁 9급 기출 문제와 유사한 유형임.>

아이를 낳으면 엄마는 정신이 없어지고 지적 능력이 감퇴한다는 것이 일반 여성들의 상식이었다. 그런데 올 봄 풀리 처상 수상작가인 캐서린 엘리슨이 『엄마의 뇌: 엄마가 된다는 것이 우리의 뇌를 얼마나 영리하게 하는가』라는 책을 써서 뉴욕 타임즈, CBS, NBC, BBS 등의 기사가 된 바 있다. 엘리슨이 그런 아이디어를 얻게 된 것은 1999년의 신경과 학자 크레이그 킹슬리 등의 연구결과를 접하고였다.

최근 보스톤 글로브지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킹슬리 박사 팀은 몇 개의 실험을 통하여 흥미있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들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엄마쥐는 처녀쥐보다 인지능력이 급격히 증가하여 후각능력과 시각능력이 급증하고 먹잇감을 처녀쥐보다 세 배나 더 빨리 찾았다. 엄마쥐의 뇌의 해마(기억 및 학습 담당)의 신경로가 새롭게 재구성되는 것 같았다고 한다.

엄마쥐가 되면 엄마의 두뇌는 에스트로젠, 코티졸, 기타 다른 호르몬에 의해 마치 목욕을 한 것처럼 된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어미 혼자 내적으로 두뇌의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새끼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두뇌 변화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새끼를 핏먹이고 다루고 하는 과정에서 감각적 민감화와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인지적 능력이 상승한다.

그러면 인간에게서는 어떨까. 대개 엄마가 되면 너무 힘들고 일에 부대껴서 결국은 머리가 켈리처럼 말랑말랑해져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상당 부분 사회공동체적 자기암시로부터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하이오 신경심리학자 줄리에 수어는 임신한 여성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A집단에게는 ‘임신이 기억과 과제 수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한다’고 하고 B집단에게는 설명없이 그 과제를 주었다. 그 결과 A집단 임신 여성들이 B집단보다 과제 수행점수가 상당히 낮았다. A집단은 임신하면 머리가 나빠진다는 부정적 고정관념의 영향을 받아 헤어나지 못한 것이다.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쥐에게서 엄마가 된다는 것은 감각, 인지적 능력 및 용감성 등을 높여준다. 아빠쥐도 새끼와 상호작용하면서 뇌가 더 영리해진다고 한다. 임신한 엄마처럼 아빠의 뇌에서도 관련 호르몬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지금껏 연구는 주로 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인간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될 가능성은 많다.

- ① 이 글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고정관념의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다.
- ② 이 글은 임신 및 출산에 따른 뇌 기능의 변화에 관한 실험 결과를 논박하고 있다.
- ③ 임신과 출산의 긍정적 측면은 다양한 호르몬의 분비 및 아이와의 상호작용으로 인지 - 수행 뇌기능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 ④ 육아활동을 통해 아빠의 뇌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정답] ②

[정답 풀이] ‘논박’이란 주장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조리 있게 공격하여 말하는 것을 이른다. 그러나 이 글에서 화자는 어떤 주장에 논박하고 있지는 않다.

[참고]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2012.04.07. 국가직 9급 기출 문제>

<보기>

극의 진행과 등장인물의 대사 및 감정 등을 관객에게 설명했던 번시가 등장한 것은 1900년대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번시가 있었지만 그 역할은 미미했을 뿐더러 그마저도 자막과 반주 음악이 등장하면서 점차 소멸하였다. 하지만 주로 동양권,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는 번시의 존재가 두드러졌다. 한국에서 번시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극장가가 형성된 1910년부터인데, 한국 최초의 번시는 우정식으로, 단성시를 운영하던 박승필이 내세운 인물이었다. 그 후, 김덕경, 서상호, 김영환, 박응면, 성동호 등의 극장은 대개 5명 정도의 번시를 전속으로 두었으며 2명 내지 3명이 교대로 무대에 올라 한 영화를 담당하였다. 4명 내지 8명의 번시가 한 무대에 등장하여 영화의 대사를 교환하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한 명의 번시가 영화를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영화가 점점 장편화되면서부터는 2명 내지 4명이 번갈아 무대에 등장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번시는 악단의 행진곡을 신호로 무대에 등장하였으며, 소위 전설(前設)을 하였는데 전설이란 활동사진을 상영하기 전에 그 개요를 앞서 설명하는 것이었다. 전설이 끝나면 활동 사진을 상영하고 해설을 시작하였다. 번시는 전설과 해설 이외에도 막간극을 공연하기도 했는데 당시 영화관에는 영사기가 대체로 한 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필름을 교체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코믹한 내용을 공연하였다.

- ①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번시가 막간극을 공연했다.
- ② 한국에 극장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900년경이었다.

- ③ 한국은 영화의 장편화를 무대에 서는 번사의 수가 늘어났다.
- ④ 자막과 반주 음악의 등장으로 번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정답] ③ [정답 풀이] 앞부분의 내용 : 대개 5명 정도의 번사를 전속으로 두었으며 2명 내지 3명이 교대로 무대에 올라 한 영화를 담당하였다. 뒷부분의 내용 : 영화가 점점 장편화되면서 2명 내지 4명이 번갈아 무대에 등장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오답 풀이] ①의 내용은 본문의 내용으로 정확히 알 수 없다. ② '한국에서 번사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극장가가 형성된 1910년부터'라고 하였다. ④ 앞부분에서 미국, 유럽에서는 자막과 반주 음악의 등장으로 번사가 점차 소멸하였다고 하였다.

[참고]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010.5.22. 지방직 수탁 9급 기출 문제>

<보기>

인간 사유의 결정적이고도 독창적인 비약은 시각적인 표시의 코드 체계의 발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시각적인 표시의 코드 체계에 의해 인간은 정확한 말을 결정하여 텍스트를 마련하고, 또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쓰기(writing)'이다.

이러한 '쓰기'에 의해 코드화된 시각적인 표시는 말을 사로잡게 되고, 그 결과 그때까지 소리 속에서 발전해 온 정밀하고 복잡한 구조나 지시 체계의 특수한 복잡성이 그대로 시각적으로 기록될 수 있게 되고, 나아가서는 그러한 시각적인 기록으로 인해 그 보다 훨씬 정교한 구조나 지시 체계가 산출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정교함은 구술적인 발화가 지니는 잠재력으로써는 도저히 기록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다. 이렇듯 '쓰기'는 인간의 모든 기술적 발명 속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이었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쓰기는 말하기에 단순히 첨가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쓰기는 말하기를 구술 - 청각의 세계에서 새로운 감각의 세계, 즉 시각의 세계로 이동시킴으로써 말하기와 사고를 함께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 ① 인간은 시각적 코드 체계를 사용함으로써 말하기를 한층 정교한 구조로 만들었다.
- ② 인간은 쓰기를 통해서 정확한 말을 사용한 텍스트의 생산과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 ③ 인간은 쓰기를 통해 지시 체계의 복잡성을 기록함으로써 말하기와 사고의 변화를 일으켰다.
- ④ 인간은 시각적 코드 체계를 사용함으로써 비로소 정밀하고 복잡한 구조의 지시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다.

[정답] ④ [정답 풀이] '소리 속에서 발전해 온 정밀하고 복잡한 구조나 지시 체계의 특수한 복잡성' : 위 문장은 관형절을 안은문장이다. 관형절로 안기기 전의 문장으로 바꾸어 보면,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다. '정밀하고 복잡한 구조나 지시 체계의 특수한 복잡성이 소리 속에서 발전해 왔다.'라고 문장을 고쳐 놓고 보면, ④번 선택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복잡한 구조의 지시 체계는 시각적 기록 이전에 이미 말하기 속에서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12.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09.4.11. 국가직 9급 기출 문제 그대로 출제됨.>

<2012.4.7. 국가직 9급 기출 문제 유형과 유사함.>

- ①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적발한 과장 광고의 사례는 300건이 훨씬 넘는다.
- ② 유리 건물은 으레 공간을 최소화하여 각종 사고 예방과 업무의 생산성도 높이고 있다.
- ③ 어제의 세상과 오늘의 세상이 다르듯이 어제의 말과 오늘의 말도 다르다.
- ④ 한국인에게 있어서 대장암은 위암이나 폐암 등과 같이 발병률이 높은 암이다.

[정답] ②

[정답 풀이] 접속조사 '와/과'는 같은 자격(문장성분)의 말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조사이며, 서술어가 일치하여야 한다. '사고 예방과 업무의 생산성도 높이고 있다.'를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도'는 보조사이며, 목적격조사 '을/를'을 대신해 쓰였다.

㉠ 사고 예방도 높이고 있다. (×) : 서술어의 호응관계가 바르지 않음. ㉡ 업무의 생산성도 높이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적발한 과장 광고의 사례는 300건이 훨씬 넘는다."

위 문장을 두 개의 홑문장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장 광고를 적발하다. (○)

㉡ 과장 광고의 사례는 300건이 훨씬 넘는다. (○)

㉢의 '에서'는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다. '적발하다'는 주어 외에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이기 때문에 '~이/가 ~을'을 적발하다'는 어법에 맞음.

㉣의 '넘다'는 '~이/가 ~이/가 넘다' 또는 '~을/를 넘다' 둘 모두 문장의 형식이 바른 표현임. 문장의 주어인 '사례가'를 보조사 '는'을 써서 '사례는'으로 쓴 것은 맞는 표현.

따라서 '괴장 광고의 사례는(사례가) 300건이 훨씬 넘는다.'는 맞는 표현.

③ "어제의 세상과 오늘의 세상이 다르듯이 어제의 말과 오늘의 말도 다르다."

위 문장은 앞의 절과 뒤의 절이 연결어미 '듯이'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이다. ③번의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어제의 세상과 오늘의 세상이 다르다. (○)

㉡ 어제의 말과 오늘의 말도 다르다. (○)

'다르다'를 서술어로 쓸 때의 문장의 형식은 '~이/가 ~와/과 다르다'이다. 따라서 제시된 문장은 어법에 바른 표현이다. ('A가 B와 다르다'를 'B와 A가 다르다'로 자리를 바꾸어도 문장성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자리를 바꾸어 표현해도 된다.) ②번의 '와/과'는 접속조사이지만, ③번의 '와/과'는 비교부사격조사이다.

④ "한국인에게 있어서 대장암은 위암이나 폐암 등과 같이 발병률이 높은 암이다."

위 문장에서 '~에게 있어서'라는 표현은 이미 표준국어대사전에 '있다'의 뜻풀이 예제로 실린 상태임.

'위암이나 폐암 등과 같이'는 부사절. 부사절을 빼고 문장을 보면, "대장암은 발병률이 높은 암이다."만 남는다. '발병률이 높은'은 '암'을 꾸며 주는 관형절이고, 이 관형절을 빼고 보면, 전체 문장의 형식이 '~은 ~이다'인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문장의 형식도 맞고, 전체 문장 속에 안긴 부사절과 관형절도 또한 어법에 맞다.

[참고] '있다'가 주로 '~에게에 있어서' 구성으로 쓰여, 앞에 오는 명사를 화제나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상태를 나타냄.

[참고] 우리말 표현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2.4.7. 국가직 9급 기출 문제>

- 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② 우리가 기름을 아껴 쓰려면 자원의 낭비도 막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 ③ 시민 각자가 환경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 ④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과 쾌적한 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기 청정기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정답] ② [정답 풀이] 앞 절 : 우리가 기름을 아껴 쓰다. 뒤 절 : (우리가) 자원의 낭비를 막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도'는 보조사이므로 원래 있던 격조사를 넣어 문장을 절 단위로 끊어서 보면 어법에 맞게 쓰인 문장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접속조사 '와'를 잘못 쓴 사례.

'인식의 변화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의 '와'는 접속조사이다. 접속조사 앞의 체언과 뒤의 체언은 같은 문장성분이어야 하고 서술어와 호응이 되어야 하는데, '인식의 변화가 높아지고 있다'는 호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고쳐야 한다.

(고친 문장) 인식이 변화하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③ '환경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 바른 표현

그러나 '환경 정보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 틀린 표현

'~대해' : 예전에는 불필요한 표현이라고 했지만 표준국어대사전의 '대하다'의 뜻 ③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기 때문에 - 여전히 한국어평가 시험에는 외국어의 번역투 문장이라고 문제를 내고 있지만 - 단순히 '~대해'를 쓴 것만으로는 어법에 틀린 문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환경정보'와 뒤의 서술어 '참여할'과의 호응 관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어법에 틀린 문장의 선택지로 봐야 한다.

*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의 '대하다'의 뜻 ③, 【·에】 (('대하', '대하여' 꼴로 쓰여)대상이나 상대로 삼다. (예)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강력 사건에 대한 대책/건강에 대하여 묻다/신탁 통치인에 대한 우리 민족의 반대 운동은 전국적이었다./이 문제에 대하여 토론해 보자./장관이 이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임하였다.

④ 건강과 쾌적한 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 접속조사 앞의 체언과 뒤의 체언은 같은 문장성분이어야 하고 서술어와 호응이 되어야 하는데, '건강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호응이 되지 않는다.

다음 중 우리말 표현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0.4.10. 국가직 9급 기출 문제>

- ① 서울시 의회가 열릴 때마다 이 문제는 빠지지 않고 거론되어 왔다.
- ② 이곳에 주차하는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하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 ③ 행정 당국은 위험 지역을 신속하게 재점검하고 긴급 대책을 펴야 한다.
- ④ 각 지역에 설치된 은행은 혈관이고 중앙은행은 마치 심장 구실을 한다.

[정답] ①

[정답 풀이]관형절 안의 주어 '의회가'와 서술어 '열리다'의 호응관계가 어법에 맞음.

전체 절의 주어 '문제가'와 서술어 '빠지지 않다', '거론되다'의 호응관계가 어법에 맞음.

[오답 풀이]

② 주어와 서술어 호응관계가 맞지 않으며, 부사어가 들어가야 한다. 두 문장으로 나누어 주거나 뒤의 절의 군더더기 말을 빼버려도 된다.

고친 문장 : 이곳에 주차하는 사람에게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곳에 주차하는 사람은 이 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③ '퍼다'가 '세력'이나 '작전, 정책 따위를 벌이다'의 뜻으로 쓰일 때는 목적어 말고도 부사어가 있어야 한다. "위험 지역에 긴급 대책을 펴야 한다."라고 고

치는 것이 어법에 맞다.

④ 각 지역에 설치된 은행은 혈관이고 중앙은행은 마치 심장 구실을 한다.

: '마치'는 '거의 비슷하게'의 뜻으로 '처럼', '듯', '듯이' 따위가 붙은 단어나 '같다', '양하다' 따위와 함께 쓰인다.

(고친 문장) 각 지역에 설치된 은행이 혈관이라면, 중앙은행은 마치 심장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참고] 문장 성분상 결함이 있는 문장들이다. 그 성격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2009.5.23. 지방직 수탁 9급 기출 문제>

- ① 외국에 나가면 말은 저절로 배운다는 이유만으로 훌쩍 떠났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쉽다.
- ② 나자프의 질서 회복을 위해 특수부대 병력을 파견했으며, 밤 11시 이후 통금령을 내렸다.
- ③ 결국 의존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원활한 시스템 운영일 것이다.
- ④ 회사는 방송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 일부를 활용할 방침이다.

[정답] ④ [정답 풀이] ④는 '활용하다' 앞에 부사어 '-에'가 들어가야 하는데 없으므로 '필수부사어'가 잘못 생략된 것이지만, 나머지는 모두 주어 잘못 생략된 것이다.

13. ㉠~㉣에 들어갈 한자숙어나 고사성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2010.4.10. 국가직 9급 기출 문제 그대로 출제됨.>

- (㉠) 이라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보니 욕심이 생긴다.
- 그 교수님의 강의 내용은 작년 것과 (㉡) 하다.
- 부정부패를 (㉢) 하고서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는 법이다.
- 공무원은 (㉣) 의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	㉡	㉢	㉣
① 見勿生心	大同少異	發本塞源	不偏不黨
② 見勿生心	大同小異	拔本塞源	不便不黨
③ 見物生心	大同小異	拔本塞源	不偏不黨
④ 見物生心	大同少異	發本塞源	不便不黨

[정답] ③

[정답 풀이]

- ㉠ '견물생심'의 '물'은 '사물, 물건'을 나타내는 '物(물)'이 맞다.
- ㉡ '대동소이'의 '소'는 '크다'는 뜻을 나타내는 '大(대)'의 반대자로 '小(소)'를 쓰는 것이 맞다.
- ㉢ '발본색원'의 '발'은 '뽑다'는 뜻을 나타내는 '拔(발)'을 쓰는 것이 맞다. '發(발)'은 쏘다, 퍼다, 피다 등의 뜻이다.
- ㉣ '불편부당'의 '편'은 '치우치다'는 뜻을 나타내는 '偏(편)'을 쓰는 것이 맞다. '便(편)'은 편안하다는 뜻이다.

[참고] 다음의 글에서 ()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2009.4.11. 국가직 9급 기출 문제>

나는 우리나라의 청년 남녀가 모두 과거의 조그맣고 좁다란 생각을 버리고, 우리 민족의 큰 사명에 눈을 떠서, 제 마음을 닦고 제 힘을 기르기로 낙을 삼기를 바란다. 젊은 사람들이 모두 이 정신을 가지고 이 방향으로 힘을 쏟으면 30년이 못하여 우리 민족은 ()하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하는 바다.
- 김구, 「나의 소원」 중에서 -

[정답] ① [정답 풀이] 괄목상대 : 눈을 비비고 상대편을 본다는 뜻으로,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부쩍 높을 이르는 말.

[참고] 다음 글에 적합한 고사성어는? <2010.4.10. 국가직 9급 기출 문제>

우리 대표 팀은 올림픽 예선에서 놀랄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예선전이 있기 전 주전 선수들의 부상이 있었고 감독의 교체가 있었으며 그러다 보니 대표 팀 내부의 심리적인 갈등도 꽤 있었다. 사실 국민 모두 이번 올림픽 예선은 탈락이라는 수모를 겪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표 팀의 모든 코치진과 선수들은 그들에 대한 국민들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것이다. 그래서인지 대표 팀은 들뜨지 않고 본선에서의 진정한 승리, 즉 금메달을 향해 더욱 가열차게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고 한다. 코치진도 더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경기력 향상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 ① 走馬加鞭 ② 走馬看山 ③ 切齒腐心 ④ 見蚊拔劍

[정답] ① [정답 풀이] 윗글의 중심 내용 : 대표 팀이 올림픽 예선에서 놀랄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대표 팀은 들뜨지 않고 본선에서의 승리를 향해 더욱 매진하고 있다.

잘하는 사람을 더욱 장려하는 내용이므로 '주마가편'이 적절하다.

* 走馬加鞭(주마가편) :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뜻으로, 잘하는 사람을 더욱 장려함을 이르는 말.

[오답 풀이]

走馬看山(주마간산) : 말을 타고 달려서 산천을 구경한다는 뜻으로,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대충대충 보고 지나감을 이르는 말.

切齒腐心(질치부심) :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

見蚊拔劍(견문발검) : 모기를 보고 칼을 뽑는다는 뜻으로, 사소한 일에 크게 성내어 덤빔을 이르는 말

[참고] 다음은 신문의 건강칼럼 일부이다. ()에 들어갈 적절한 것은? <2008.4.12. 국가직 9급 기출 문제>

필수 지방산인 리놀렌산과 알파 리놀렌산은 인체에서 합성되지 않으므로 꼭 섭취해 줘야 한다. 이것이 모자라면 아토피 피부염이나 성장장애 등의 부작용이 온다. 또 알파 리놀렌산(오메가3 지방산)이 부족하면 두뇌와 망막에 필요한 DHA가 부족해 학습 능력과 시각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DHA가 머리에 좋다.'는 말은 여기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란 말처럼 전체 지방량이 신체의 25%를 넘으면 문제가 된다. 인체의 혈액이나 조직에 지방 함량이 높아지면 고혈압, 당뇨, 비만, 심장병, 뇌졸중 등 성인병이 생기며, 당달아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의 발병률도 증가하게 된다.

- ① 다다익선(多多益善) ② 과유불급(過猶不及)
- ③ 전화위복(轉禍爲福) ④ 새옹지마(塞翁之馬)

[정답] ② [정답 풀이] 앞 문단의 중심내용은 필수지방산인 리놀렌산과 알파 리놀렌산은 꼭 섭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뒤에 이어지는 문단에서는 '신체의 25%를 넘으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을 지닌 '과유불급(過猶不及)'이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다.

14. (가) 상황에 어울리는 글을 쓰려고 할 때 (나) 조건에 가장 잘 맞는 것은?

<2010.4.10. 국가직 9급 기출 문제 그대로 출제됨.>

(가) 상황 : 서로 다른 성격으로 인해 자주 다투는 두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충고의 말을 하려 한다. 내용은 삶과 관련하여 '조화(調和)의 가치'에 대한 것으로 하고자 한다.

(나) 조건 : ㉠ 대립적인 속성을 지닌 사물을 이용한다.

㉡ 유추와 대조의 효과를 살린다.

㉢ 가치의 요소를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① 이는 딱딱하고 혀는 부드럽다. 이는 음식을 씹되 그 맛을 모르고, 혀는 맛볼 수는 있으나 맛이 우러나게 씹을 수는 없다. 이 둘이 어울려 제 기능을 다할 때 음식으로부터 즐거움과 건강을 얻을 수 있듯이, 엄격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가 존재하기에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이런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② 분수와 폭포는 영원한 대립자이다. 폭포는 지하를 향해 끝없이 하강하려 하지만, 분수는 천상을 향해 부단히 상승하려고 한다. 폭포가 철저히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려 한다면 분수는 이러한 법칙에 반대하고 저항한다. 이 두 개의 의지는 결코 서로 만나 이웃을 이루는 일이 없다.

③ 광명과 암흑은 정반대의 현상이다. 그러나 광명이 있을 때 비로소 암흑이 생겨난다. 촛불로 인해 찾아 온 광명은 암흑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촛불 밑에 암흑을 불러들인다. 광명이 없는 암흑은 다만 죽어 있는 정적에 지나지 않는다. 광명은 암흑을 깨어나게 한다.

④ 인간에게 역사와 신화의 두 다리가 있다. 역사는 먹고 자고 입는 일상의 울타리 속에서 움직이며, 신화는 사랑하고 노래하며 춤추는 초월의 언덕 위에서 행동한다. 밥은 역사의 양식이며 술은 신화의 양분이다. 이 둘 모두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술 없이는 살아도 밥 없이는 살 수 없다.

[정답] ①

[정답 풀이]

• 첫 번째 문장 : 대립적인 속성을 지닌 사물을 이용하여 썼음

• 두 번째 문장 : 아버지와 어머니의 다른 성격이 조화를 이루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통해 '조화의 가치'를 드러냄. 유추의 방법을 써서 이와 혀의 관계를 먼저 제시하고 유추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도 이와 같음을 드러냄.

• 마지막 문장 : 삶과 관련하여 '조화의 가치'를 암시적으로 드러냄.

[오답 풀이]

- ② '이 두 개의 의지는 결코 서로 만나 이웃을 이루는 일이 없다.'라는 부분은 '조화 가치'란 주제와 거리가 먼 내용이다.
- ③ '광명이 있을 때 암흑이 생겨난다.', '광명은 암흑을 불러들인다.', '광명은 암흑을 깨어나게 한다.'라는 내용만이 있다. 대립적인 속성을 지닌 사물을 이용하긴 했으나 유추의 효과를 살리지 못했고, 삶과 관련하여 '조화의 가치'를 암시적으로 드러내지도 못했다.
- ④ 대립적인 속성을 지닌 사물을 이용하고 있으나 '술 없이는 살아도'란 부분의 내용은 '조화의 가치'와 배치되는 내용이다. 즉 삶과 관련하여 '조화의 가치'를 암시적으로 드러내지 못했다.

[참고] <보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쓸 수 있는 글의 주제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2009.5.23. 지방직 수탁 9급 기출 문제>

<보기>

- 몸이 조금 피곤하다고 해서 버스나 전철의 경로석에 앉아서야 되겠는가?
 - 아무도 다니지 않는 한밤중에 붉은 신호등을 지킨 장애인 운전기사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 개같이 벌여 정승같이 쓴다는 말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까지 써서 돈을 벌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인간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일관된 행위를 해야 한다.
 - ② 민주 시민이라면 부조리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그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 ③ 도덕성 회복이야말로 현대 사회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 ④ 개인의 이익과 배치된다 할지라도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규약은 지켜야 한다.

[정답] ④

[정답 풀이]

- 몸이 조금 피곤하다는 것은 개인의 이익. "노인들만 앉도록 되어 있는 경로석"은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규약.
- 아무도 다니지 않는 길에 자신의 편의 때문에 신호를 어기는 행위는 개인의 이익. "길을 건너는 행인이 없더라도 신호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규약.
- 정당하지 않은 방법까지 써서 돈을 버는 것은 개인의 이익.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규약을 개인의 이익 때문에 어기면 안 된다.

15. 다음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말하기로 볼 수 없는 것은? <2009.5.23. 지방직 수탁 9급 기출 문제와 유사 유형임.>

성공적인 대화가 되려면 감동을 줄 수 있는 솔직한 화법이어야 하고,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해야 하며, 상대방의 의견과 다른 내용일지라도 완곡한 어법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을 함께 전달하거나 적절한 표현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 ① 뭐 대학엔 별 생각이 없어? 정신 차려 인마. 너만큼 컴퓨터 하는 놈들은 얼마든지 있어! 한심한 놈, 밥 대신 꿈 먹고 사는 놈 아냐, 이놈이.
- ②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께 꾸벅 인사하며) 컴퓨터, 고맙습니다. 그리고요(다시 고개 푹 숙여 인사하며) 죄송합니다.
- ③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엘 고어는 경기장 내 담배 광고판을 없애자는 취지의 연설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그때 소녀의 나이는 열세 살이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나이 들수록 흡연 횟수는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십대의 꽃다운 나이에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그 소녀는 다름 아닌 내 누이였습니다."
- ④ 자넨 물론 아들이 늦을 걸 염려하지만 점순이루 말하면 이제 겨우 열여섯이 아닌가? 그렇지만 아까 빙장님의 말씀이 올 가을에는 열 일은 제치고라도 성례를 시켜주겠다 하시니 좀 고마운 것인가. 빨리 가서 모 붓든 거나 마저 붓게.

[정답] ①

[정답 풀이] ①의 대화는 성공적인 대화가 되지 못한다. 감동을 주는 솔직한 표현도 아니며, 완곡한 표현도 아닌 상대를 비난하는 말투를 사용하고 있다. "상대방의 의견과 다른 내용일지라도 완곡한 어법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와 어긋나는 표현이다.

[오답 풀이]

- ② 솔직하고 간결한 표현으로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한 성공적인 대화라 할 수 있다.
- ③ 엘 고어는 경기장 내 담배 광고판을 없애자는 연설을 하면서 자기 누이의 사례를 들어 청자에게 감동을 주고 솔직하면서도 간결하며 완곡하게 표현하여 성공적인 대화를 이끌어 내었다.
- ④ 지금 성례를 시켜주지 않더라도 올 가을에 시켜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을 함께 전달한 완곡한 표현으로 성공적인 대화라 할 수 있다.

[참고] 밑줄 친 부분의 말하기 방식과 가장 유사한 것은? <2009.5.23. 지방직 수탁 9급 기출 문제>

<보기>

형님 놀부 댁에서 쫓겨나 마을 어귀에 당도하니 여러 아이놈들이 밥 달리는 소리가 귀를 찢는다. 그러더니 흥보 큰아들이 나왔으며, “아이고, 어머니!”
“이 자식아, 너는 또 어찌하여 이상한 목소리를 내느냐?”
“어머니 아버지, 날 장가 좀 들여 주오. 내가 장가가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만히 누워 생각하니 어머니 아버지 손자가 늦어 갑니다.” 흥보 마누라가 이 말을 듣고 더욱 기가 막히더라.

- ① (지방의회 의원에 출마하면서 유권자에게) “저는 여러분의 충실한 대변인이 되고 싶지 출세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 ② (약속에 늦게 와서 기다리는 친구에게) “미안해, 난 일찍 출발했는데 길이 워낙 막혀서 말이야.”
- ③ (자꾸 그릇을 깨는 동생에게) “아니, 너 혹시 그릇 집에 뭐 잘 보일 일이 있는 거 아냐?”
- ④ (넘어져서 다리를 다친 아이에게) “그래도 걸을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

[정답] ① [정답 풀이] 자기 행동의 이유를 바르게 말하지 않고 감추고 상대방에게서 그 이유를 찾거나 상대방의 마음에 들 만한 이유를 들어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을 찾으면 된다.

[참고]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2.04.07. 국가직 9급 기출 문제>

<보기>

칠수 : 그렇다고 껌 값 모아 재벌 되냐? 그래 매달 오만원씩 적금 넣고 몇 만 원씩 갯돈 붓고 아침, 점심, 저녁 라면 먹고 숙직실에서 몽개면 너 환갑 때쯤 돈 몇 천만 원 모을 수 있을 줄 알지? 근데 그 돈으로 집 한 채 장만 못 해. 너 틀렸어, 임마. 애 너 전에 이 씨 알지? 서울역 앞에서 가스 환기통 해 주던 아저씨 말이야. 그 아저씨 별명이 뭘지 아냐? 소야, 쇠 정말 그 아저씨 여태 돈 모으는 재미 하나로 살았다. 일만 있으면 지방으로 산꼭대기로 어디든지 밧줄 메고 찾아갔어. 그러다가 십 몇 년 만에 그럴듯한 연립 하나 장만했지. 근데 그동안 너무 못 먹고 괴로웠는지 몸을 버렸나 봐. 하여튼 비쩍비쩍 마르고 빌빌하기에 우리가 끌고 병원에 갔다. 간경화래! 중증이더라구. 근데 그 아저씨 겨우 장만한 집 한 채 병원비로 다 날리고 다 죽네, 어찌네, 해서 병원에서 그냥 나왔어. 눈만 안 감았지, 몸은 장작개비처럼 비쩍 말라가지고 죽을 때만 기다리는 거야. 애 근데 그 아저씨 지금 뭐라는 줄 아냐? 세상을 미련하게 살았다! 알겠냐? 몸 팔아서 번 돈 다 몸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식아.

-오종우, '칠수와 만수' 중에서-

- ① 칠수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현실을 비판하고 있어.
- ② 칠수의 대화 상대는 착실하고 검소한 사람인 것 같아.
- ③ 칠수는 다른 사람의 경우를 예로 들어 상대를 설득하고 있어.
- ④ 칠수는 시종일관 강한 어조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어.

[정답] ①
[정답 풀이] 비유적 표현이 쓰이기는 했으나 비유적 표현이 현실의 상황 자체를 비판하기 위해 쓴 것은 아니다. '껌 값 모아 재벌 되냐?' -적은 액수의 돈을 '껌 값'으로 비유함. '몸은 장작개비처럼 비쩍 말라가지고' - 몸을 '장작개비'에 비유함.

16. 언어 예절에 맞는 것은? <2012.4.7. 국가직 9급 기출 문제 그대로 출제됨.>

- ① (같은 반 친구에게) 칠수야, 선생님이 너 교무실로 오시래.
- ②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선생님, 저는 김해 김씨입니다.
- ③ (점원이 손님에게) 전부 합쳐서 6만 9천원 되시겠습니다.
- ④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에서) 할아버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답] ④
[정답 풀이] '말씀'은 남의 말을 높여 이를 때와 자기의 말을 낮추어 이를 때 두 경우 다 쓰인다. ④번에서는 자신의 말을 낮추어 이룰 경우에 해당된다.
* 말씀 : 「1」 남의 말을 높여 이르는 말.
(예) 선생님의 말씀대로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영희 아버님 말씀도 옳으신 데가 있어요.

② 자기의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

(예) 선생님, 제 말씀 좀 들어 주세요. 제가 할아버지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오답 풀이] ①에 제시된 '오시래'는 '오시라고 해.'의 준말이다.

고친 문장 : "철수야, 선생님께서 너더러 교무실로 오라고 하시어."

(“오라고 하시어.”의 준말 : ‘오라고 하시.’ 또는 ‘오라시어.’ 또는 ‘오라셔.’ 모두 맞음.)

제시된 문장 해설 : "철수야, 선생님이 너(더러) 교무실로 오시라고 해."

(밑줄 친 부분은 간접인용절이며, '너' 뒤에 조사 '더러'가 생략된 문형이다.)

상대방 청자를 부를 때 호격 조사 '야'를 써서 '철수'를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 높임 구분 중 '해체' 종결어미인 '-아/어'를 쓴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문장의 전체 주어인 주체는 '선생님'이므로 주체를 높여 '선생님께서'라고 고쳐야 하며, 문장 전체의 서술어 '하다'의 활용에 주체높임선어말어미 '-시-'를 넣어 '하시어.'라고 고쳐야 한다. '하시어'는 '하셔'로 줄일 수 있다. 인용절의 생략된 주어는 '철수(너)'이므로, 철수의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 '오시라'에 쓰인 높임 선어말 어미 '-시-'는 빼야 한다. (간접인용절이 명령문이므로 인용절의 주어 생략된 것이다.)

② '김씨(氏)' → '김가(哥)': 자신의 성을 말할 경우에는 '~가(哥)', 남의 성을 말할 경우에는 '~씨(氏)'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되겠습니다' → '되겠습니까' : '-시-'는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 쓰이는 어미가 아니라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데에 쓰이는 주체 높임선어말어미이다. 제시된 문장의 주체는 사람이 아닌 금액인데,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어미를 썼기 때문에 높임법에 맞지 않다. 제시된 문장에는 불필요한 '-시-'를 빼고, 종결어미 '-습니다'로만 쓰면 된다.

[참고] 언어 예절에 부합하는 것은? <2007.12.16. 국가직 세무 특채 기출 문제>

- ① 시부모에게 남편에 대해 말할 때, "아범 아직 안 들어왔어요."라고 말한다.
- ② 손자가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아버지가 식사하시러 오리십니다."라고 말한다.
- ③ 방송 사회자가 초대 손님을 소개할 때, "영화 '밀양'의 주인공, 전○○ 씨를 모시겠습니다."라고 말한다.
- ④ 공식 석상에서 예의를 차려 자기 아내를 소개할 때, "제 부인입니다."라고 말한다.

[정답] ① [정답 풀이]

- ② 할아버지, 아버지가 진지 잡수시러 오시라고 합니다.(=오시랍니다.) (압존법 원칙)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진지 잡수시러 오시라고 하십니다. (=오시라십니다.) (압존법 쓰지 않은 것도 허용함.)
- ③ 모시겠습니다 → 소개하겠습니다
- ④ '부인'은 남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이므로 자신의 아내를 소개할 때는 '아내, 집사람, 처'로 소개하는 것이 바르다.

[참고] 호칭어와 지칭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4.12. 국가직 9급 기출문제>

- ① 남편의 여동생을 '고모'라고 부른다.
- ② 오빠의 아내는 '언니'라고 부르고, 지칭어는 '올케'이다.
- ③ 누나의 입장에서 남동생의 아내는 지칭어가 '올케'이다.
- ④ 남편의 형을 이르는 말은 '아주머니'이다.

[정답] ① '고모' → '아카씨'

[정답 풀이] '나'를 여자라고 가정하고 볼 때, '내' 남편의 여동생은 시누이다. 순위의 시누는 '형님'이라고 부르고, 손아래의 시누는 '아카씨'라고 불러야 한다. 시누를 다른 사람에게 지칭할 때, '나'의 자식과의 관계를 밀려, 'OO 고모'라고 할 수는 있으나, 시누를 부를 때 '고모'라고 해서는 안 된다. '고모'는 '나'의 아버지의 여형제이고, '나'보다 위의 항렬이지만, '시누'는 남편의 여형제로 '나'와는 같은 항렬이다. 시누가 '나'를 부를 때, 순위 시누는 '나'를 '올케'라고 부르고, 손아래 시누는 '나'를 '(새)언니' 또는 '올케 언니'라고 부른다.

[참고] 제시된 호칭어나 지칭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1.4.9. 국가직 9급 기출 문제>

- ① 가친(家親), 엄친(嚴親): 남에게 자기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 ② 자친(慈親), 가자(家慈): 남에게 자기 어머니를 가리키는 말이다.
- ③ 선친(先親), 선고(先考): 남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일컫는 말이다.
- ④ 춘부장(椿府丈), 춘장(椿丈), 춘당(椿堂): 남의 살아 계신 아버지를 일컫는 말이다.

[정답] ③

[정답 풀이] ③ 선친(先親), 선고(先考), 선엄(先嚴): 남에게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이르는 말.

(구별) 돌아가신 남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은 선고장(先考丈), 선장(先丈), 선대인(先大人)

[참고] 남의 살아 계신 어머니 : 자당(慈堂), 모당(母堂), 환당(萱堂)

17. 국어의 특질로 옳바르지 않은 것은? <2009.4.11. 국가직 9급 기출 문제와 유사한 유형임>

- ① 국어의 고유어에는 상징어를 나타내는 어휘가 발달하여 있다.
- ② 국어는 어간에 문법적인 기능을 가진 요소가 결합하는 첨가어의 특성을 지닌다.
- ③ 국어는 첫소리에서 ‘ㄹ’, ‘ㅇ’이 받음되지 않는다.
- ④ 국어의 자음은 ‘[k]:[g], [t]:[d], [p]:[b]’처럼 ‘무성음:유성음’의 대립을 이룬다.

[정답] ④

[정답 풀이] 영어는 이중 대립을 이루지만, 한국어는 파열음 계열의 음운(ㄱ/ㄲ/ㅋ, ㄷ/ㄸ/ㅌ, ㅂ/ㅃ/ㅍ)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삼중 대립 체계를 이룬다.

파찰음도 ‘ㅈ/ㅉ/ㅊ’의 삼중 대립 체계를 이룬다. 파열음과 파찰음을 아울러 ‘파열음 계열’이라고 한다.

[참고] 한국어의 특성으로 맞지 않는 것은? <2009.4.11. 국가직 9급 기출문제>

- ① 한국어는 첨가어이므로 접사나 어미가 발달되어 있다.
- ② 한국어에서는 주어가 잇달아 나타나는 문장 구성이 가능하다.
- ③ 한국어에서 관형어는 항상 체언 앞에 온다.
- ④ 한국어의 관형사는 형용사처럼 활용한다.

[정답] ④ [정답 풀이] 관형사는 불변어. 활용을 하는 것은 ‘동사’, ‘형용사’, 서술격조사 ‘이다 셋뿐이다.

18. 어원상 신체 기관과 관계없는 한자어는? <2011.4.9. 국가직 9급 기출 문제와 유사한 유형임>

- ① 단장(斷腸) ② 유전(遺傳)
- ③ 지장(指掌) ④ 장풍(掌風)

[정답] ②

[정답 풀이] * 유전(遺傳) [남길 유, 따를 수, 전할 전]

- ㉠ 물려받아 내려옴. 또는 그렇게 전해짐.
- ㉡ 『쌍문』 아버지의 성격, 체질, 형상 따위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해짐. 또는 그런 현상.

[오답 풀이]

- ① 단장(斷腸)[끊을 단, 창자 장] : 몹시 슬퍼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함.
- ③ 지장(指掌)[가리킬 지, 손바닥 장] : 도장을 대신하여 손가락에 인주 따위를 문혀 그 지문(指紋)을 찍은 것.
- ④ 장풍(掌風)[손바닥 장, 바람 풍] : 무술에서, 손바닥으로 일으키는 바람.

[참고] 밑줄 친 단어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2012.04.07. 국가직 9급>

<보기>

석가나 예수는 만천하의 대중을 품에 안고, 그들에게 밝은 길을 찾아 주며, 그들을 행복하고 평화스러운 곳으로 인도하겠다는 커다란 이상을 품었다. 그러기에 길지 아니한 삶을 살았음에도, 그들의 ‘그림자’는 천고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 ① 형상(形象) ② 상념(想念) ③ 업적(業績) ④ 후예(後裔)

[정답] ③ [정답 풀이] ‘그림자’는 이들의 ‘업적’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사물의 생긴 모양이나 상태. ②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④ 자신의 세대에서 여러 세대가 지난 뒤의 자녀를 통틀어 이르는 말.

[참고] 아래의 뜻풀이를 참고하여 예문의 괄호 안에 넣을 가장 알맞은 단어는? <2011.4.9. 국가직 9급 기출 문제>

<보기>

단어의 뜻 : 경험(經驗)에 의하지 않고 순수(純粹)한 이성(理性)에 의하여 인식(認識)하고 설명하는 것.

예문 : 당신 생각은 ()이야, 이성(理性)에 의한 분별(分別)에만 기초하니까. 경험(經驗)도 필요한 거야.

- ① 사색적(思索的) ② 사유적(思惟的)
- ③ 사상적(思想的) ④ 사변적(思辨的)

[정답] ④ [정답 풀이] ④ 사변적(思辨的): 경험에 의하지 않고 순수한 이성(理性)에 의하여 인식하고 설명하는. 또는 그런 것.

예문의 괄호 뒤에 이어지는 말 중에서 ‘분별(分別)’이란 단어와 관련지어 유추해 보면 된다.

‘사변’의 한자 ‘변(辨)’은 분별하다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오답 풀이] ① 사색적(思索的): 사색을 많이 하거나 좋아하는. 또는 그런 것. ② 사유적(思惟的): 대상을 두루 생각하는. 또는 그런 것. 철학, 개념, 구성.

판단, 추리 따위를 행하는 인간의 이성 작용. ≡사고(思考). ③ 사상적(思想的): 어떤 사상에 관계되는. 또는 그런 것.

19. 밑줄 친 단어와 문맥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2012.4.7. 국가직 9급 기술 문제 그대로 출제됨>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 ① 관찰(觀察)하고 ② 예언(豫言)하고 ③ 간주(看做)하고 ④ 전망(展望)하고

[정답] ④

[정답 풀이] 밑줄 친 '보다'는 '앞날을 헤아려 내다보다'의 뜻인 '전망하다'와 가장 문맥적으로 상통한다.

[참고] 밑줄 친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2010.4.10. 국가직 9급 기술 문제>

<보기>

과학사(科學史)를 살펴보면, 과학이 가치중립적이란 신화는 무너지고 만다. 어느 시대가 낳은 과학이론은 과학자의 인생관, 자연관은 물론 당대의 시대사조나 사회, 경제, 문화적 제반 요소들이 상당히 긴밀하게 상호작용한 총체적 산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어느 시대적 분위기가 무르익어 어떤 과학이론을 출현시키는가 하면, 그 배출된 이론이 다시 문화의 여러 영역에서 되먹임 되어 직접 또는 간접의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이다. 다윈의 진화론으로부터 사회적 다윈주의가 출현한 것은 그 가장 극적인 예이고, '엔트로피 법칙'이 현존 과학기술 문명에 깔린 발전 개념을 비판하고 새로운 세계관을 모색하는 틀이 되는 것도 그 같은 맥락이다.

- ① 기상천외한 그들의 행적은 하나의 신화로 남았다.
② 아시아의 몇몇 국가들은 짧은 기간 동안 고도성장의 신화를 이룩하였다.
③ 월드컵 4강 신화를 떠올려 본다면 국민 소득 2만 달러 시대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④ 미식축구 선수 하인즈워드의 인간 승리를 보면서 단일민족이라는 신화가 얼마나 많은 혼혈 한국인들을 소외시켜 왔는지 절실히 깨달았다.

[정답] ④

[정답 풀이] '과학은 가치중립적이란 신화: 사람들은 '과학의 진리는 가치중립적인 것이다.'라는 말을 무비판적으로 믿고 살아간다. 마치 거룩하고 고결한 이야기인 신화를 사실인 마냥 믿는 것처럼 과학을 대하기에 필자는 '신화'란 말을 썼다. 여기서 '신화'의 뜻 중, ㉠의 의미로 쓴 것이다. ㉣번의 '신화'도 ㉠의 의미로 쓴 것이다.

'신화(神話)'의 뜻:

㉠ 문학 고대인의 사유나 표상이 반영된, 함부로 가까이하질 수 없을 만큼 고결하고 거룩한 이야기. 사실인 마냥 믿는 설화의 하위 갈래. ㉡ 신기하고(놀랍고 색다르며) 묘한 데가 있는 이야기. ㉢ 절대적이고 획기적인 업적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오답 풀이] ㉠의 '신화'는 ㉡의 뜻. ㉡와 ㉢번의 '신화'는 ㉢의 뜻.

[참고] 밑줄 친 표현 중 올바르게 사용된 것은? <2012.4.7. 국가직 9급 기술 문제>

- ① 민주 사회는 자유와 평등을 지양(止揚)한다.
②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도매금(都賣級)으로 욕을 먹었다.
③ 그 회사는 사건의 진상을 호도(糊塗)하려고 한다.
④ 우리 할아버지는 향년(享年) 80세이신데도 정정하시다.

[정답] ③ [정답 풀이] * 호도(糊塗) [포칠할 (호), 진흙 흙을 바른 칠할 (도)]

: 풀을 바르다는 뜻으로, 명확하게 결말을 내지 않고 일시적으로 감추거나 흐지부지 덮어 버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오답 풀이]

① 지양(止揚)→지향(志向)

제시된 문장의 '자유와 평등'은 민주 사회가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할 내용이므로 '지향'이 적절한 어휘이다.

* 지양(止揚):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하지 아니함. '피함', '하지 않음'의 뜻. (예) 지역 이기주의는 지양되어야 한다.

* 지향(志向):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함. 또는 그 방향이나 그쪽으로 쏠리는 의지.

② 도매금(X) 비표준어임. →도매금(都賣金)(O)

* 도매금(都賣金)[一금]: '도매가격'의 뜻으로, 주로 '도매금으로' 꼴로 쓰여, 각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럿이 같은 무리로 취급받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예) 잘못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모두 도매금[一금]으로 욕을 먹었다.

④ 향년(享年) → 당년(當年)

* 향년(享年): 한평생 살아 누린 나이. 죽을 때의 나이를 말할 때 쓴다.

* 당년(當年): ㉠ 일이 있는 바로 그해. (예) 그는 졸업한 당년에 사법 고시에 합격했다.

㉠ =올해, (예) 그분은 당년[올해] 52세이다.

㉡ (('이십', '삼십', '사십' 등 십 단위 수 뒤에 쓰여) 그 수에 해당하는 나이나 연대를 이르는 말. (예) 내 오십 당년에 이런 일은 처음 보네.

[참고] 한자어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2011.4.9. 국가직 9급 기출 문제>

- ① 법(法)에 저촉(抵觸)되다. → “법에 걸리다.”라는 말이다.
- ② 식별(識別)이 용이(容易)하다. → “눈에 선하다.”라는 말이다.
- ③ 촉수(觸手)를 엄금(嚴禁)하시오. → “손대지 마시오.”라는 말이다.
- ④ 장물(贓物)을 은닉(隱匿)하다. → “범죄 행위로 부당하게 취득한 남의 물건을 숨기다.”라는 말이다.

[정답] ② [정답 풀이] ② 식별(識別) : 분별하여 알아봄.

“식별(識別)이 용이(容易)하다.”라는 말은 분별하여 알아보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고 매우 쉽다는 뜻이다.

‘선하다’ : 지난 일이나 물건의 모양이 눈앞에 보이는 듯 기억에 생생하다. 잊히지 않고 눈앞에 생생하게 보이는 듯하다는 뜻이므로 ‘용이하다’와 같은 뜻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저촉(抵觸) : 법률이나 규칙 따위에 위반되거나 거슬림. ‘걸리다’의 뜻은 ‘어떤 것에 어긋나다.’의 뜻. ③ 촉수(觸手) : 사물에 손을 댈 엄금(嚴禁) : 엄히 금하다. ④ 장물(贓物) :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따위의 재산 범죄에 의하여 불법으로 가진 타인 소유의 재물. 은닉(隱匿) : 남의 물건이나 범죄인을 감춤.

20.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2011.4.9. 국가직 9급 기출 문제 그대로 출제됨>

- ① 쓰레기를 길에 버리면 안된다.
- ② 이 일을 하는 데에 사흘이 걸렸다.
- ③ 부모 자식간에는 정이 있어야 한다.
- ④ 그가 집을 떠난지 일 년이 지났다.

[정답] ②

[정답 풀이] ②의 ‘데’는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 것이 맞다.

[오답 풀이]

① 버리면 안된다. : 위 예제의 ‘되다’는 주로 ‘-면’ 풀 다음에 쓰여 ‘괜찮거나 바람직하다.’의 뜻이다. 예) 사람은 착하면 된다.

‘안’은 부정의 뜻으로 쓰이면 부사이므로 뒤의 말과 띄어쓰기해야 함. 즉, “쓰레기를 버리면 되겠니?”라는 질문에 대답할 때, “돼요” 또는 “안돼요.”라고 대답하는 것을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③ 자식간 : 관계의 뜻을 나타내는 ‘간’은 의존명사이므로 앞 말과 띄어쓰기해야 함.

* ‘간’ : 「의존명사」

㉠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까지의 ‘사이’. 예) 서울과 부산간 야간열차.

㉡ (('일부 명사 뒤에 쓰여)) ‘관계’의 뜻을 나타내는 말. 예) 부모와 자식간에도 지켜야 할 예절이 있다./스승과 제자간에/형과 동생간의 싸움은 집집마다 허다하다.

㉢ ((' -고 -고 간에’, ‘-거나 -거나 간에’, ‘-든지 -든지 간에’ 구성으로 쓰여))

앞에 나열된 말 가운데 어느 쪽인지를 가리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예) 그는 집에서고 학교에서고간에 공부만 한다.

그가 꽃을 좋아했거나 좋아하지 않았거나간에 나는 꽃을 선물했다.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간에 열심히만 해라.

[구별] 합성어의 예 : 조순간, 숙질간, 부자간, 부녀간, 모자간, 모녀간, 형제간, 부부간(내외간)

[구별] 파생어의 예 :

* 간 : 「접사」

㉠ (('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동안’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이틀간/사흘간/나흘간/닷새간/엿새간/이레간/여드레간/아흐레간/열흘간

십 일간/보름간/일주일간/한 달간/석 달간/삼 년간/삼십 년간

5일간/7일간/10일간/2달간/3년간/40년간

㉡ (('몇몇 명사 뒤에 붙어)) ‘장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대장간/외양간/마구간/기차간/수라간/고깃간/푸줏간/물레방앗간/디딜방앗간
방앗간/윗간/아랫간

④ 떠난지 : ‘지’는 의존명사이므로 앞 말과 띄어쓰기해야 함.

* ‘지’ : 「의존명사」 ((어미 ‘-은’ 뒤에 쓰여)) :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

예) 그를 만난 지도 꽤 오래되었다./집을 떠난 지 어언 3년이 지났다.

[구별] -든지/-든지/-은지 : 「어미」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어미.

㉔ 얼마나 부지런한지 세 사람 몫의 일을 해낸다.

[참고]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맞춤법이 모두 옳은 것은? <2010.4.10. 국가직 9급 기술 문제>

- ① 그는~가~민히~있다가~모임에~온~지~두~시간~만에~돌아가~버렸다.
- ② 옆집~김씨~말로는~개필이~좋다는데~우리도~언제~한~번~같이~갑시다.
- ③ 그가~이렇게~늦어지는~걸~보니~무슨~큰~일이~난~게~틀림~없다.
- ④ 하늘이~뿔린~것인지~몇~날~몇~일을~기다려도~비는~그치지~않았다.

[정답] ① [정답 풀이] ①의 '지'는 의존명사이므로 '온'과 '지'를 띄어쓰기한 것이 맞다. ①의 '만'은 의존명사이므로 '시간'과 '만'을 띄어쓰기한 것이 맞다. [오답 풀이]

② 옆집~김~씨~말로는~개필이~좋다는데~우리도~언제~한~번~같이~갑시다.
: '그 성씨 자체', '그 성씨의 가문이나 문중'의 뜻으로 쓸 때는 접미사 '씨'를 성 뒤에 붙여 쓰고, '그 사람을 높이거나 대접하여 부르거나 이르는 말'일 때는 의존명사 '씨'를 쓰고 앞말과 띄어쓰기하는 것이 어법에 바르다.

'기회 있는 어떤 때'나 '어떤 일을 시험 삼아 시도함'의 뜻일 때에는 합성어 '한번'으로 써야 맞다.

③ 그가~이렇게~늦어지는~걸~보니~무슨~큰일이~난~게~틀림~없다.

: '걸'은 의존명사 '것'과 조사 '을'이 함께 줄어든 말이다. '것'이 의존명사이므로 앞 말과 띄어쓰기 한 것은 어법에 맞다. 그러나 '큰일'과 '틀림없다'는 합성어이므로 띄어 쓰면 안 된다.

* 큰일 : 다루는 데 힘이 많이 들고 범위가 넓은 일. 또는 중대한 일. 결혼, 회갑, 초상 따위의 큰 잔치나 예식을 치르는 일.

③ * '몇 알'로 적는 경우는 없다. 항상 '며칠'로 적는다.

* 며칠 : 「1」 그달의 몇째 되는 날. (예) 오늘이 며칠이지?

「2」 몇 날. (예) 그는 며칠 동안 도대체 아무 말이 없었다./이 일은 며칠이나 걸리겠니?

㉔ * 의존명사 '지' : (주로 어미 '-나/은' 뒤에 쓰여)어떤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 (예) 그를 만난~지도 꽤 오래되었다. /떠나 온~지 어언 3년이 지났다.

(구별) 연결어미 (으)르~지/(으)느~지/던~지 : 추측에 대한 막연한 의문. (예) 언제 올지 알 수 없었다. (예) 날씨가 얼마나 추웠던지 발이 꿈꿈 얼었어.

㉔ 의존명사 '만' : ((흔히 '만에', '만이다' 꼴로 쓰여) 동안이 얼마나 계속되었음을 나타내는 말.

(예) 그를 삼 년 만에 다시 만났어. 그를 다시 만난 건 삼 년 만이다.

(구별) 보조사 '만' : 「1」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 (예) 하루 종일 잠만 잤다.

「2」 무엇을 강조하는 뜻. (예) 그를 만~나~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

「3」 화자가 기대하는 마지막 선을 나타냄. (예) 너만 나를 믿어 주면 돼.

「4」 (('하다', '못하다'와 함께 쓰여) 앞말이 나타내는 대상이나 내용 정도에 달함을 나타냄.

(예) 집채만 한 파도가 몰려온다. 향만 한 아우가 없다.

㉔ 의존명사 '씨' : 그 사람을 부르거나 이르는 말. (예) 이 일은 김민수 씨가 맡기로 했다. / 이 일은 옆집 이 씨가 하기로 했다.

(구별) 접미사 '씨' : '그 성씨 자체', '그 성씨의 가문이나 문중' (예) 민씨 일파/그의 성은 남씨입니다.

㉔ 합성어인 '한번' :

* 명사 '한번' 「1」 ((주로 '-어 보다' 구성과 함께 쓰여) 어떤 일을 시험 삼아 시도함을 나타내는 말. (예) 내가 일단 한번 먹어 볼게.

「2」 기회 있는 어떤 때. (예)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너의 집에 한번 찾아가고 싶었어.

「3」 (주로 '한번은' 꼴로 쓰여) 지난 어느 때나 기회. (예) 한번은 도로에서 큰 사고를 낼 뻔했지.

* 부사 '한번' ((명사 바로 뒤에 쓰여) :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예) 춤 한번 잘 추네. 동네 인심 한번 좋군.

(구별) '번'이 차례나 일의 횟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과 같이 띄어 쓴다. '한번'을 '두 번', '세 번'으로 바꾸어 뜻이 통하면 '한 번'으로 띄어 쓰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으로 붙여 쓴다. "한번 엮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라는 문장에서 '한번'을 두 번으로 바꾸면 말이 통하지 않으므로, '한번'을 붙여 쓰지만, "한 번 실패하더라도 두 번, 세 번 다시 도전하자."라는 문장에서 '한 번'은 '두 번'으로 바꾸어도 뜻이 통하므로 '한 번'으로 띄어 쓴다.

[참고] '안', '못'이 결합된 복합어 :

1. 잘되다 : 「동사」(1자리 서술어)	2. 안되다 : 「동사」(1자리 서술어)
<p>㉔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썩 좋게 이루어지다. 예) 농사가 잘되다/바느질이 잘된 양복/일이 잘돼 간다./서류 보관이 잘되었다./회사를 그만둔 것이 차라리 잘됐다.</p> <p>㉔ 사람이 훌륭하게 되다. 예) 부모님들은 늘 자식 잘되기를 바란다.</p> <p>㉔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른다. 예) 우리 중 잘되어야 두 명만이 합격할 수 있다.</p> <p>㉔ (반어적 표현으로) 결과가 좋지 아니하게 되다. 예)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졌다고 하자 사촌 오빠는 잘됐다며 약을 올렸다.</p>	<p>㉔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 예)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과일 농사가 안되어 큰 일이다. / 공부가 안돼서 잠깐 쉬고 있다.</p> <p>㉔ 사람이 훌륭하게 되지 못하다. 예) 자식이 안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p> <p>㉔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 예) 이번 시험에서 우리 중 안되어도 세 명은 합격할 것 같다.</p>

3. '안되다' : 「형용사」

- ㉠ 【...이】 【-기가】 섭섭하거나 기없어 마음이 언짢다.
 ㉡ 나는 갑자기 남편을 잃은 그녀가 너무 안됐다/결수는 영희를 혼자 보내기가 안돼서 역까지 배웅했다.
 ㉢ 근심이나 병 따위로 얼굴이 많이 상하다.
 ㉣ 몸살을 앓더니 얼굴이 많이 안됐구나/ 영희가 안색이 안돼 보여서 나는 영희에게 보약을 지어서 보냈다.
4. '못되다' : 「형용사」
 ㉠ 성절이나 품행 따위가 좋지 않거나 고약하다. ㉡ 못된 심보/못된 장난/못되게 굴다/못된 버릇을 고치다.
 ㉢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 그 일이 못된 게 남의 탓이겠어.
5. '못나다' : 「형용사」 (반의어 : '잘나다')
 ㉠ 얼굴이 잘나거나 예쁘지 않다. ㉡ 그 여자는 얼굴이 좀 못났어.
 ㉢ 능력이 모자라거나 어리석다. ㉣ 사람이 얼마나 못났으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니?
6. '못생기다' : 「형용사」 생김새가 보통보다 못하다. ㉡ 못생긴 사람/못생긴 얼굴/다리가 못생겼다.
 7. '못마땅하다' : 「형용사」 【...이】 마음에 들지 않아 좋지 않다. ㉡ 못마땅한 눈초리/못마땅한 말/못마땅하게 여기다.
 8. '못지않다' : '못지아니하다'의 준말. 「형용사」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뒤지지 않다. ㉡ 그의 노래 실력은 가수 못지않다./그는 화가 못지않게 그림을 잘 그린다.
 9. '못살다' : 「동사」 ㉠ 가난하게 살다. ㉡ 그가 힘들게 산다고 들었지만 그렇게 못사는 줄은 몰랐어.
 ㉢ ((‘못살게 팔로 흔히 ‘굴다’와 함께 쓰여)) 성가시고 견디기 어렵게 하다. ㉣ 에 좀 못살게 굴지 마라./년 왜 친구를 못살게 괴롭히니?
 10. '못쓰다' : 「동사」 ㉠ ((‘못쓰게 팔로 쓰여')) 얼굴이나 몸이 축나다. ㉡ 얼굴이 못쓰게 상하다/그는 병으로 하루하루 못쓰게 돼 갔다.
 ㉢ ((주로 ‘-으면’, ‘-어서’와 함께 쓰여)) 옳지 않다. 또는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다. ㉣ 거짓말을 하면 못써/무엇이든 지나치면 못쓴다.
 11. 못하다 : 동사, 형용사 통용되어 쓰임.
 「1」 동사 【...을】 어떤 일을 일정한 수준에 못 미치게 하거나, 그 일을 할 능력이 없다. ㉡ 나는 노래를 못해. 그는 술을 전혀 못한다.
 「2」 형용사 ㉠ 【-보다】 비교 대상에 미치지 아니하다. (부사격조사 ‘보다’ 대신에 보조사 ‘만’의 구성으로도 쓰임.)
 ㉡ 음식 맛이 예전보다 못하다/청군이 백군만 못하다/건강이 젊은 시절만 못하다.
 ㉢ ((‘못해도’ 팔로 쓰여)) 아무리 적게 잡아도. ㉣ 잡은 고기가 못해도 열 마리는 되겠지/아무리 못해도 스무 명은 죽히 넘을 것이다.
 「3」 보조동사 ((동사 뒤에서 ‘-지 못하다’ 구성으로 쓰여)) 본용언의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행동을 이룰 능력이 없음을 나타냄.
 ㉡ 바빠서 동창회에 가지 못하다/배가 아파 밥을 먹지 못하다.
 「4」 보조형용사 ㉠ ((형용사 뒤에서 ‘-지 못하다’ 구성으로 쓰여)) 본용언의 상태에 미치지 아니함을 나타냄.
 ㉡ 편안하지 못하다/아름답지 못하다/음식 맛이 좋지 못하다/그런 태도는 옳지 못하다.
 ㉢ ((동사와 형용사 뒤에서 주로 ‘-다(가) 못하여(못해)’ 구성으로 쓰여))
 본용언의 행동이나 상태가 극에 달해 그것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을 나타냄.
 ㉡ 회다 못해 푸른빛이 도는 차이/보다 못해 간섭을 하다/기다리다 못하여 돌아갔다/배가 고프다 못해 아프다.